

# 솔로몬의 성전 완공

성경 열왕기상 6:1-13

## 신 67 쉼대 대화

<b>일어날 때</b>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b>집에 있을 때</b>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세요.	성전 안과 밖의 삶이 일치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b>길을 갈 때</b>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b>누워 있을 때</b>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찬양

### 1 내 평생 사는 동안(은혜의 찬양 61장)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목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 2 주와 같이 갈 가는 것(찬송가 430장)

- 1 주와 같이 갈 가는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 4 옛 선지자 예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 말씀 읽기 열왕기상 6:1-13

-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 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 2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며
- 3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십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십 규빗이며
- 4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불박이 창문을 내고
- 5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 6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 7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 8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 9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서까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 10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 11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12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 13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 본문 배경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유브라데강부터 애굽 지경까지 이르렀고, 수많은 백성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과의 무역 거래를 통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돌과 나무를 준비합니다. 성전의 크기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의 크기보다 두 배나 큰 크기로,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규빗’(약 45cm)은 길이를 측량하는 단위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사람의 팔꿈치부터 가운데손가락까지 길이를 가리킵니다. 이를 요즘 쓰이는 단위로 계산하면 성전의 길이는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m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은 돌을 사용해 온갖 정성을 들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광야 시절에 있던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십니다. 성전인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말씀 관찰

#### 1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시작하나요? (1절)

**답**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해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 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1b절). 성전을 건축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뜻을 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성전 공사는 ‘시브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보리 수확을 끝낸 직후로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솔로몬이 공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씨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최대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철 연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7절). 솔로몬이 얼마나 전심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2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2절)

**답**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해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보는 사람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기대하신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12b절).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도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도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 안과 밖의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 말씀 적용

- 1 우리 가정에 예배에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보수하면 좋을지 나눠 보세요.
- 2 ‘교회’와 ‘가정’이라는 두 성전을 섬기면서, 각자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 말씀 암송

## 8-4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레위기 26장 12절

조미진

♩ = 100

나 는 너희 중에 행 하여— 너 희 의 하나 님 이 되고 —

너 희 는 내 백 성 이 될 것 이 니 라 레 위 기 이 십 육 장 십 이 절 아 멘



###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 맘 다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드리며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